

단풍나무

우기(Rainy season)가 시작 되었다. 이상기후 문제로 가을과 겨울이 빨리 다가온 느낌이다. 늘 가을을 맞으면 단풍을 보게 되는데 그 때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풍 구경을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기회가 되지를 않았다. 결국 뒷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치울 때에 아까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먼지를 머금으며 겨울을 맞는다. 동부에 살 때에는 그 시간이 4-5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많은 양의 낙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밴쿠버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칠 만큼의 낙엽이 떨어진다. 올 해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그 단풍이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이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었다. 5번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에 옆에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가 빨간 색을 내며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기대하던 곳이 아니다. 그곳에 나무들이 단풍 나무였는지도 몰랐다. 마켓을 가는 길가에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렬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만들어낸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이 그런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인줄 전혀 몰랐다. 지나가는 길가에 집 없는 형상 굳을 것 같은 사람들이 쳐 놓은 텐트들 사이에도 단풍이 졌다. 그곳은 쓰레기와 더러운 것이 많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난 주 지나가면서 보니 누군가 그 자리에 심어 놓은 단풍나무로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위 가까이에 아름다운 단풍은 그렇게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주위에 쉽게 발견한 단풍들로 인하여 먼 곳에 있는 단풍만을 생각하던 내 자신이 허전하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2-3시간 걸려 도착한 그 어딘가에 비해 한 치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다. 교회에 나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장소나 부흥회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매일 저녁을 먹는 내가 사는 집에서 그리고 매일 운전하며 다니는 나의 자동차 안에도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그 은혜를 신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위대해 질까? 그것을 건물과 사람들을 숫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뜨거움의 결과일까? 아니다. 엘리야를 조용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아닌가? 모든 것에 지쳐버린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간다.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보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진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